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코스피와 코스닥

- 미국시장이 미중간 무역협상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세와 투신, 보험 등의 매수세 유입으로 20P 가까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금융투자, 은행 및 개인 등의 매도세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장을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에어부산이 상장 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으며 오피팜은 이종장기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임. 텐티움은 최근 급락이 과도했다는 판단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고 이수페타시스는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래제개는 공정했다"는 발언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으며 로보티즈는 CES 2019 개막을 앞두고 관련 기대감에 강승함. 반면, 조현준 회장의 경찰 수사 소식에 효성이 약세를 보였으며, 정치 관련주로 뛰이며 급등했던 보해양조는 적자 누적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에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배럴(267790) ▶9,980 (+8.13%)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 채널 다각화에 따른 성장성 확대 분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취향 변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판매 채널 다각화,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등에 따라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 50%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 - 동사는 지난 6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 진출을 시작으로 타오바오, 징동 등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함
하나투어 (039130) ▶68,800 (+4.88%)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개선 및 하반기 높은 실적 기저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강세 - 동사는 일본지역에 가장 높은 레버리지를 보유한 여행사로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하나투어 재팬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섬유/의류주	본격적인 한파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주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연말 소비시즌을 맞아 매출 증가 기대감이 확산되며 강세 - 한세실업(105630, +5.87%), 휠라코리아(081660, +4.90%), 신원(009270, +4.18%) 등 강세
통신장비주	5G 개화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본격적인 5G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아울러, 내년 1월 개최되는 CES의 최대 주제가 5G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됨 - 삼지전자(037460, +14.35%), 이수페타시스(007660, +13.02%), 에프알텍(073540, +9.19%), 오파스넷(173130, +9.05%), 쉐리드(050890, +8.32%), 에치디프로(214870, +8.09%), 대한광통신(010170, +7.8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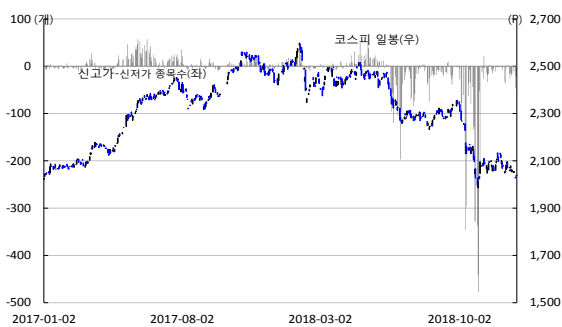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뉴욕증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에 따른 연방정부 섯다운과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해임설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전격 사임 등 연이은 악재에 주춤 이틀 연속 폭락세를 연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메시지로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최근 해임 검토설이 제기됐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
- 폭락 이후 다우지수가 122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0포인트 이상 폭등세를 보였으며, 성탄절 시즌 판매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아마존을 비롯해 기술주가 강세를 보임
- 그러나 미국 상·하원이 섯다운 돌입 6일째인 27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곧바로 휴회하고 섯다운을 끝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미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
- 국제유가는 OPEC의 추가 감산 검토 소식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배럴당 44달러 선으로 밀려남
- 일본 증시도 엔화 강세 여파로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으나 미 증시 반등 여파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임
-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폭락에도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등에 힘입어 선방, 코스피는 2,040P선으로 밀려났으나 코스닥은 670P선을 회복하며 한 해를 마감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코스닥	IT	통신장비	이노와이어리스	25,200	14.3	산업재	기계장비	이엠코리아	6,060	20.0
	IT	통신장비	오이솔루션	17,000	12.5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자이글	8,780	22.1
	소재	종이목재	한창제지	2,970	14.0					

주) 상기 종목들은 12월 28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